기도소리 가득한 수행 · 기도도량으로

해동용궁사 2월 4일 입춘기도 회향

화엄사 말사 등록 후 첫 입춘기도
초하루 등 사재일, 기본신행 강조
가족 · 공무원불자 법회 등 신설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수행기도도량으로 발돋움한다. 해동용궁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2월 4일 입춘 3일기도를 회향하면서 삼재소멸 기도를 봉행했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이번 입춘 기도는 해동용궁사가 제19교구 화엄사 말사로 정식 등록한 후 처음으로 진행한 입춘기도이다.

해동용궁사는 "화엄사로 등록하기 전에는 새해 정초를 맞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경내는 붐볐지만, 입춘기도를 하고자 할 때 축소된 형태로 간단히 진행해 아쉬워하는 불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해수관음기도도량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춘 기도에는 주지 연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으며, 중단권공, 삼재경, 화엄경 약찬게, 화엄성중정근 등 기도 소리로 도량을 장엄해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졌다.

주지 연규 스님은 "흐트러져 있던 마음자리를 기도를 통해 바로 잡고 일념을 담은 기도소리가 모두의 마음을 환희로 바꾸었을 것으로 믿는다"며 "입춘이라는 것은 봄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마음에 봄꽃이 피어야한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얻은 힘으로 삼재를 3년 동안 복을 받는 복삼재로 생각하시라"고 당부했고, 입춘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은 "기도수행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순희(68세) 불자는 "주지 스님께서 오신 뒤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입춘기도에 동참하면서 절로 신심이 일어나고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현수(35세) 불자는 "용궁사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포교 방편으로 많은 역할을 했지만 기도를 하고자 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입춘기도를 드리고 나니 신심도 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도소리를 들려줘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동용궁사는 2월 4일 입춘 3일기도를 회향했다. 사진은 대중이 머리에 경전을 올리고 경내를 돌고 있는 모습.

해동용궁사는 입춘기도를 시작으로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하는 초하루 신중기도, 매월 음력 15일 보름 용왕방생 기도,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 매월 음력 24일 해수관음재일을 지키며 기도 수행에 주력한다.

해동용궁사는 "초하루, 용왕방생, 지장재일, 관음재일을 '사재일'이라 한다"며 "사재일은 조계종 신도의 기본 신행생활이다"고 강조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기도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기도수행도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한다"며 "이번 입춘기도는 수행도량으로 가고자하는 첫 발걸음이며 기본을 준수하기 위해 사재일을 활성화하고 가족법회, 청소년 법회 그리고 공무원불자 법회 등을 만들어 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동용궁사는 지난 1월 26일 부산 구포 진여원에 백미 500kg을 전달했다. 진여원은 매주 1회 지역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후원이 축소 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규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남보타월 원장님과 불자님들이 힘을 얻으시길 바라며 보살행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聯 전통등 강습회 개최

2월 21일~22일,
전통문화계승 및
포교프로그램 개발 · 활용


2018년 부산연등축제 제등행렬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한불교 진각종 부산교구청에서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를 개최한다.

전통등 강습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연등회의 세대전승을 도모하며, 사찰 및 신행단체의 문화포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돕고자 진행된다.

강의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며 입재식 및 교육설명에 이어 골조와 배접, 밑그림, 연등 꾸미는 방법, 채색, 연등회 영상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강습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모집기간은 2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그동안 부산불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부산시민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행사를 축소하고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코로나 기간에 지친 시민들을 빛의 향연으로 위로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뜻을 전하는 등(燈)을 아름답게 밝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며 계승하기 위해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51)867-050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존 싱글러브 장군 추모법회 봉행

1월 29일 100세로 자택서 별세
6·25 김화 전투서 대대장 활약
주한미군철수 반대해 강제퇴역



홍법사(주지 심산)가 2월 4일 경내 법당에서 존 싱글러브 장군의 별세를 추모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싱글러브 장군은 6 · 25 참전용사이며 치열했던 김화 지구 전투에서 대대장으로 활약했다. 1977년 싱글러브가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재직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반대해 본국에 소환돼 강제 퇴역 당했다. 싱글러브는 강제 퇴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는 전쟁을 유도하는 오판이다"고 말한 바 있다. 싱글러브는 "강제 퇴역을 당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아 수 백 만 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판단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싱글러브는 지난 1월 29일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자택에서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홍법사는 매년 호국영령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고 6 · 25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있다. 홍법사는 7년 전에 당시 93세였던 존 싱글러브 장군을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못했고, 딸인 데브라 싱글러브가 참석한 바 있다.

딸 데브라 씨는 당시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에서 "고령으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자유와 평화에 헌신한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후 2019년 주지 심산 스님이 미국에서 싱글러브 장군을 만나 인연을 이어왔다.

홍법사는 싱글러브 장군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일화이다"며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인연의 기운을 받았다면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것이 선한 인연의 시작이자 맺음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옥천사, 생명나눔에 휠체어 및 성금 전달

2월 9일 경내서 전달식 개최
기도기간 모은 저금통 30개도

부산 사상구 옥천사(주지 무문)가 2월 9일 경내 법당에서 '사랑의 휠체어 전달식'을 봉행했다.

정초기도 회향에 맞춰 열린 전달식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휠체어 2대와 기도 기간에 불자들이 동참하여 모은 저금통 30개가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회주 청강 스님, 주지 무문 스님과 박동범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 서보인 부산불교연합회 부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무문 스님은 "부처님법을 실천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 자신이라 생각하고 보살피는 것이다"며 "함께 나누는 보살행이 큰 공덕이자 수행이다"고 강조했다.

박동범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원해주신 신도님들과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정성으로 환자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실 것이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명사, 생활치유명상 강좌 개강

초급반 1기, 3월 31일 개강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일상에 명상을 적용하도록 돕는 생활치유명상 강좌를 개설한다.

생활치유명상은 말 그대로 생활 명상으로 일상 속에 명상을 적용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강좌는 이론과 실기로 나눠 진행하며, 이론은 윤종갑 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가 담당하고, 실기는 안영숙 금강대학교 불교학과 강사가 맡는다. 이론은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과 호흡', '지관명상과 깨달음' 등 호흡과 마음챙김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되며, 실기는 걷기명상, 호흡명상, 스트레스의 각종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정좌명상, 바디스캔 등 체험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개강은 3월 31일 오후 2시이며 매주 목요일 15강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수강료는 1학기 10만 원이다. 명상을 배우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광명사는 "생활치유명상의 이해와 실기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 가운데 깨어있어 참된 행복을 아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51)581-133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2년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제 5 기 신입생 모집

1. 모집요강

① **모집인원** : 개방형(통학)○○명
② **지원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타 종단 소속 비구니
③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진(3×4)2매
④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까지**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삼선포교원)
◦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통보
◦ 등록금 : ◆1학기당 70만원
◆재수강(본원졸업생에 한함) : 30만원
◦ 면접일시 : **2022년 3월 8일(화) 오후 2시**
◦ 개강일시 : **2022년 3월 16일(수) 오후 2시**
◦ 문의 : Tel. 02)923-0582 / Fax. 02)929-1870

2. 특전

① 졸업 후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② 장학제도 : 전 학인 2년에 총 2회 수업료 전액 지급
③ 청강제도 : 본원 졸업생 중 재수강 희망자에 한함

3. 교육과정(2년 4학기)

■ **과 목** : 1학년 1학기 금강경(야보송), 선요, 아함경 I
2학기 유식30송, 금강삼매경론, 원각경
2학년 1학기 화엄경십지품, 보조법어, 대지도론
2학기 기신론, 법화경, 무량수경

■ **학사일정** : **2022년 1학기(3월 16일 ~ 6월 22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8시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연담 묘순**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원서교부 | 2022년 1월 부터
개 강 | 2022년 3월 2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 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 대령 · 관욕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2년 3월 8일 오후 3시

고등강원내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2년 3월 10일 (목)
장 소 | 제천 금강사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강의 "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① 화엄경 : 활안큰스님
② 대승불교사상 : 서무선 법사님
③ 절 요 : 혜림스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